



정교회 한국대교구 2021년 47째주 (11월 21일)

정교회 주보



성 야고보 페르시아인 대순교자

제 22주일

성모 입당 축일

제 5조, 조과복음 루가 1:39~49, 56

(조과에서 성탄 카타바시아)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 제 5조 부활 찬양송 / 82, A 215
- 주일 입당송 / 14, A 42
- 성모입당 축일 찬양송 / 204, B 236
- 성모입당 축일 시기송 / 204, B 237
- 사도경 : 히브리 9:1~7 / 봉독서 619
- 복음경 : 루가 10:38~42, 11:27~28 / 182, B 192
- 성모입당 축일 성모송 / 205, B 238
- 성모입당 축일 영성체송 / 205, B 193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교회의 기혼 성인들 성 야고보 페르시아인 대순교자

우리 교회에서 11월 27일 축일로 기념하고 있는 야고보 성인은 4세기에 살았습니다.

야고보 성인은 페르시아의 비틀라다에서 살았으며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 이스디게르(399-420재위)와 가장 가깝고 존경받는 친구였습니다. 성인은 어린 시절부터 그리스도교 신자였지만 왕의 우정과 아첨에 이끌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버렸습니다. 성인은 이스디게르 왕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고 궁전의 부가 주는 환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경건하고 신실한 그리스도교인이었던 그의 어머니와 아내가 이 사실을 알고 슬퍼하고 분노하였습니다. 야고보가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일시적인 영광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그들은 야고보의 태도에 대해 꾸짖고 그와 어떤 관계도 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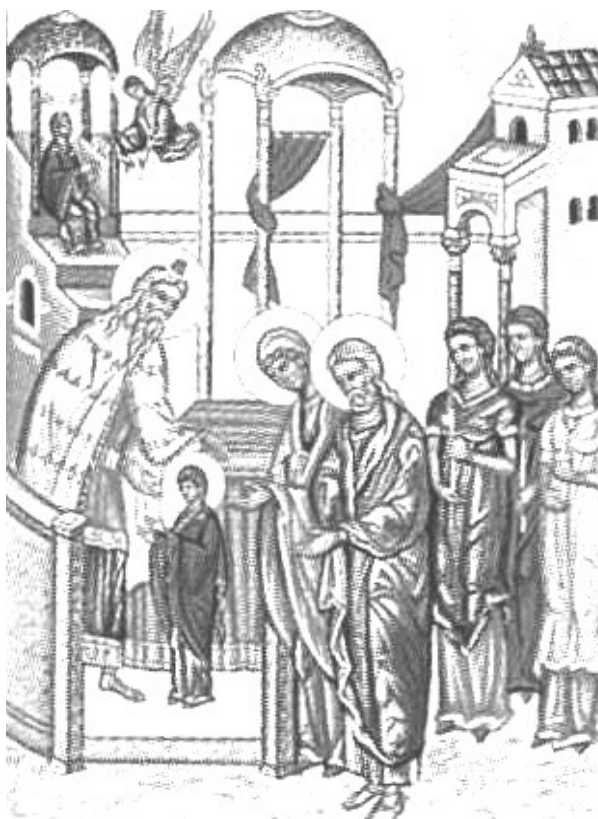
지 않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 말에 야고보는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울며 우상숭배를 거부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하느님의 길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심 후에 야고보는 왕에게 가서 그리스도에 대한 유일하고 참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이스디게르 왕은 야고보의 변화에 놀라워하면서 그를 설득하려 하였지만, 야고보는 믿음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왕은 심히 노하였고, 이스디게르 왕의 아들이자 후계자인 바람 5세(421-438재위)에게 야고보를 고문하도록 명령하였고 결국에는 팔다리를 절단하고 참수형에 처함으로써(421년) 야고보 성인은 순교자들의 무리에 들어가면서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성모님의 입당

성서에는 성모님의 부모와 출생 그리고 성장 과정에 대하여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 성모님에 대하여 전해 내려오는 전통에 의해서 그분에 대한 여러 가지의 내력을 다음과 같이 알 수 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근처 마을에는 하느님을 사랑하며 매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의로운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은 요아킴이라 불리며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이었고, 부인은 안나라고 불리며 성직자 집안의 사람이었다. 요아킴과 안나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나 나이가 들도록 자식이 없었다. 그래서 항상 하느님께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드리며 간청하기를 ‘만일, 하느님께서 아기를 주신다면 그 아이를 하느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였다. 그러는 가운데 세월이 지나 안나는 나이가 많아져서 아기를 갖는 것에 대한 소망을 단념한 상태가 되었다. 그러나 사랑의 하느님께서서는 두 부부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뒤늦게 예쁜 딸아이를 주셨고, 그들은 아기의 이름을 마리아라고 지었다. ‘마리아’는 ‘선물’, ‘희망’,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이름이다.”

이스라엘은 여인이 아기를 낳고 어느 정도 날이 지나면 아기와 함께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을 하고 성전에 아기를 바치는 입당식을 한다. 정결 예식은 (레위기 12:1-8) 산모의 부정을 벗기는 예식이며 이 예식과 함께 첫아기를 하느님께 바치기 위하여 아기를 처음으로 성전에 입당시키는 날이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사내아이를 낳게 되면 39일 동안 바깥출입을 삼가고 집 안에 있어야 한다. 40일째 되는 날 성전에 가서 번제물을 드리고 정결예식을 한다.(여자아이를 낳으면 67일째 되는 날 번제물을 드림) 번제물로는 일 년 된 어린양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는 비둘기나 산비둘기 한 쌍을 만

남의 장막 중간에 가져가 사제에게 드린다. 사제는 그 제물을 하느님께 바치고 여인이 피를 흘려 부정하게 된 몸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한다. 그러나 형편상 새끼 양을 바칠 능력이 안 되면 집비둘기 두 마리나 산비둘기 두 마리로 대신하여 한 마리는 번제로,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드린다. 속죄제란(레위기 5:7, 12:8, 4장)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기 위하여 바치는 제물로서 사제가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제단과 그 밑바닥에 뿌리는 예식이다. 루가복음 2:24절에서 마리아와 요셉은 형편상 집비둘기 한 쌍과 산비둘기 한 쌍을 정결 예식 제물로 바치려는 것을 볼 수 있다.

아기 마리아가 세 살이 되었을 때 안나는 하느님께 약속한 대로 마리아를 예루살렘의 성전에 바쳐 그곳에서 살게 하였다. 그리고 하느님께서서는 경건하고 정숙한 마리아를 선택하여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낳게 하는 영광을 주셨다. 모든 여인 중에서 가장 복되신 성모님을 우리 정교회에서는 믿음의 스승이며 어머니로서 존경하며 사랑한다.

알렉산드로스 한의종 신부

해변에서 이루어진 고백성사(1)

(조지 크리스토틀로스 신부)

지난 여름에 성직자인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이곳저곳에서 만나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과 신학적인 주제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하곤 합니다.

그날도 함께 성당에서 저녁기도를 마치고,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으로 갔습니다. 다음날 성찬예배가 없어서 식당을 나와 걷다보니 해변에 다다랐습니다. 해변에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늦은 시간이고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탓이겠지요. 우린 바닷가의 의자에 앉았습니다.

바다는 잔잔했고, 맑은 하늘에는 빛나는 별들만 가득했습니다. 더구나 가볍게 불어오는 바람 탓에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바닷물결 소리만이 간간이 고요 속에 들려왔습니다.

그 밤은 마치 하느님의 위대함과 섭리를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별뿔별이 떨어지는 광경을 우린 났을 잃고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그때가 벌써 새벽 2시 반이었습니다! 우린 시간가는 줄 몰랐습니다. 아마도 하느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으셨던 거지요.

저는 거리에서, 산 위에서, 차고나 병원, 광장 등 어디에서든지 고백성사를 행해왔습니다. 고백성사를 하려는 사람을 보면, 저는 그들의 영혼을 도와주려는 마음에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받아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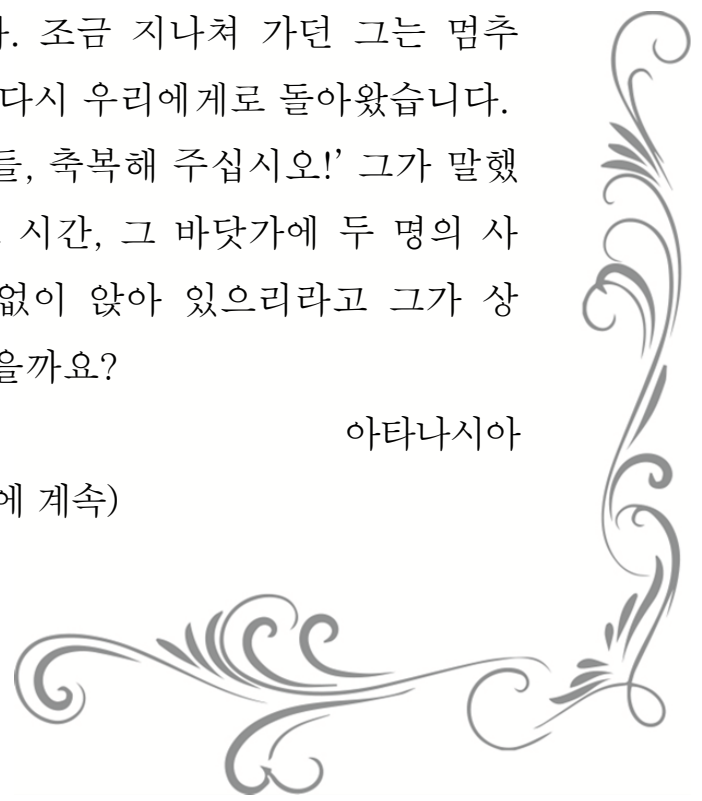
다. 언제나 힘들이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러나 고백성사를 해변에서 행하게 될 줄이야!

5분이 채 지나지 않아서 한 남자가 우리들 앞을 지나갔습니다. 처음에 그는 우리를 알아채지 못했는데, 그건 밤이라 어둡고 우리 또한 검은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금 지나쳐 가던 그는 멈추어 서더니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신부님들, 축복해 주십시오!’ 그가 말했습니다. 그 시간, 그 바닷가에 두 명의 사제가 뜬금없이 앉아 있으리라고 그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아타나시아

(다음 주에 계속)



주보 소식

대교구

■ 성 안드레아 수도원 축일 예배

오는 11월 30일은 성 안드레아 축일로 양구 성 안드레아 수도원의 축일입니다. 올해 수도원 축일 예배는 11월 27일(토) 오전 9시 30분에 축일 조과를 시작하고 계속해서 성찬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성 안드레아 수도원 축일 예배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오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하여 축일을 경축합시다.

■ 성모안식 성당 재건축 상황

지난 11월 15일(월)에 건축 설계사와 전주 성모안식 성당의 재건축의 세부적인 마무리과정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하느님의 도움으로 성당의 재건축 공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느님의 도움과 성모님의 중보로 잘 완공될 수 있도록 신자 분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부분의 협조도 부탁드립니다.

주간예식



11월 25일(목) 성 에카테리나 대순교자,
성 메르쿠리오 대순교자
오전 9시 - 축일조과 및 성찬예배

